

손흥민, EPL 득점왕·파워 랭킹 1위 등극

손흥민(30·토트넘)이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에 오르며 새 역사를 썼다.

손흥민은 지난 22일 영국 노리치 캐로 로드에서 열린 2021~2022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경기 38라운드 노리치 시티와 경기에서 선발 출장해 2골을 넣으며 리그 공동 득점왕(23골)에 올랐다. 손흥민은 한국 선수로서는 물론 아시아 선수로서도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올랐다. 토트넘 이적 7시즌 만에 이뤄낸 쾌거다.

스카이스포츠는 2021~2022시즌 누적 파워 랭킹에서 손흥민이 8만1천31점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매체가 뽑은 시즌 최고 선수의 자리도 파워 랭킹 1위인 손흥민에게 돌아갔다. 막판까지 리그



▲ 손흥민이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EPL 공동 득점왕에 올랐다. 사진=twitter(daguitovaldes)

우승 경쟁을 펼친 맨체스터 시티의 케빈 데브라위너와 리버풀의 무함마드 살라흐는 각각 7만 1천973점과 7만4천336점에 그쳤다.

손흥민이 올 시즌에 보여준 공격력은 순도가 매우 높다. 손흥민은 페널티킥 없이 23골을 넣었다. 공동 득점왕 살라흐는 23골 중 5골이 페널티킥 득점이다. 손흥민은 또 올 시즌 시도한 슈팅 86개 중 끝문으로 향하는 유효 슈팅이 49개(57%)로 EPL 득점 1~5위 선수 중 비율이 가장 높았다.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된 비율도 27%로 5명 중 최고였다.

한국 축구의 위상을 드높인 손흥민은 5월 30일 대표팀에 합류해 카타르월드컵에 대비한 평가전에 나선다.

1년째 쉬는 페더러, 수입은 1위



▲ 로저 페더러. 사진=포브스.com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41·스위스)는 부상 휴업이 장기화되면서 거의 1년째 코트를 떠나 있다. 그 사이 세계 랭킹이 47위까지 떨어졌지만, 수입 1위만큼은 흔들리지 않는다.

지난 26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미국 테니스월드는 이날 스포츠 비즈니스를 다루는 ‘스포티코 포트라’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페더러가 2022년에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인 테니스 선수”라고 전했다. 페더러는 이 기간 8570만 달러를 벌어들였는데, 이는 미국프로농구(NBA) 간판스타인 르브론 제임스(LA레이커스)와 비슷한 규모다. 남녀 프로 테니스를 통틀어 독보적인 1위, 전체 운동선수를 통틀어 8위에 해당하는 수입이다. 테니스월드 “부상으로 상금 수입은 거의 없음에도 수입 중 8,500만 달러가 스폰서 금액이라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페더러는 지난해 7월 뱀발던 이후 무릎 부상으로 인해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고 있다. 2020년도 두 차례나 무릎 수술을 받았다. 40대에 접어든 페더러는 최근 부상이 잦아지면서 2020년 6경기, 2021년에는 13경기만 뛰었다. 복귀는 늦어지고 있다. 당초 올해 첫 메이저 대회인 호주오픈에 출전 의지를 드러냈지만 무산됐다. 프랑스오픈도 나서지 못했다.

페더러는 여전히 현역에 의지를 보인다. 메이저 대회 단식에서 20차례 우승한 페더러는 21회 우승의 라파엘 나달(스페인)에 이어 이 부문 공동 2위에 올라 있다.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가 페더러와 함께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에서 20차례 정상에 올랐다.

다시 불붙는 고진영-넬리 코르다 세계 최고 경쟁

2021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를 뜨겁게 달궜던 고진영(27)과 넬리 코르다(24·미국)의 최고선수 싸움이 다시 불붙는다.

지난 2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넬리 코르다는 6월 2일부터 노스캐롤라이나주 서던 파인스의 파인 니들스 로지&GC(파 71·6,546야드)에서 열리는 제 77회 US여자오픈에 출전한다. 코르다는 지난 3월초 왼팔에 혈전증 증세를 보인 이후 치료에 전념해왔다.

고진영과 코르다의 최고선수 경쟁은 2021년 LPGA 투어 최고 화두였다. 코르다가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에서 첫 메이저 타이틀을 차지하며 약 2년간 집권한 고진영의 세계 1위를 빼앗았고 이후 서로 치고 받으며 두 차례씩 왕좌를 주고받는 경쟁을 이어갔다.



▲ 넬리 코르다(좌)·고진영(우). 사진=골프다이제스트

2020 도쿄 올림픽 금메달, 메이저 대회 1승 포함 시즌 4승을 거둔 코르다와 맞붙은 고진영이 시즌 최강전 투어 챔피언십 마지막날 역전 우승하며 시즌 5승(다승왕)과 상금왕, 올해의 선수까지 거머쥔 순간은 잊지 못할 명장면이었다.

둘의 자존심 대결은 올 봄 다시 화끈하게 이어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코르다가 갑자기 건강 문제로 쉬게되면서 잠시 미뤄졌다.

다. 코르다가 US여자오픈에 출전하면 올해 처음으로 고진영과 만나게 된다.

고진영도 코르다의 복귀를 반기고 있다. 시즌 첫 대회 우승 이후 다소 기복을 보이고 있는 고진영에게도 강력한 라이벌 넬리 코르다의 등장은 신선한 자극제가 될게 틀림없다.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캐비닛
윈도우/ 지붕수리
전기/ 플러밍
각종 리모델링

작은일도 합니다!

Kim's Handyman
562.833.0766

Home Remodeling